



한 의서와 고문헌에 나타난 고려인삼

Literature Review of Korean Ginseng on the Classics of Oriental Medicine

최고야, 김동선*

한국한의학연구원

Goya Choi, Dong Seon Ki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인삼(人蔘, Ginseng Radix)은 두릅나무과(Araliaceae)에 속한 인삼(*Panax ginseng* C.A.Mey.)의 뿌리로서, 『동의보감(東醫寶鑑)』에 500회 이상 등장하는 한약재로²⁾, 한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학사상 인삼이 등장하는 최초의 문헌은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으로 알려져 있다. 『신농본초경』은 중국 후한말경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저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나 후세의 다른 문헌들에 인용됨으로써 그 내용이 보존되어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인용된 『신농본초경』 내용에 따르면, 인삼은 맛이 달고 성질이 약간 차가우며 독은 없고, 주로 오장(五臟)을 보충하고 정신을 안정시켜 심계항진증을 멎게 하며,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눈을 밝게 하고 가슴속을 시원하게 하며, 지각능력을 향상시키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한다(‘味甘 微寒 無毒, 主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輕身延年’)³⁾.

한편 한의약 관련 종사자들이 대부분 암기하는 「약성가(藥

性歌)⁴⁾에서는 “인삼은 맛이 달고 원기를 보충하며,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이 나게 하며 영기(營氣)와 위기(衛氣)를 조절한다(‘人蔘 味甘 補元氣, 止渴 生津 調營衛’)”라고 하고 있어, 『신농본초경』에서 설명하는 인삼의 효능과 일선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된 효능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인삼의 약성(藥性)에 대해서도 『신농본초경』에서는 성질이 약간 차갑다(微寒)⁵⁾고 하였으나, 『증류본초(證類本草)』에서는 약간 차가우며 약간 따뜻하다(微寒, 微溫)⁶⁾고 하였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약간 따뜻하거나 따뜻하다(‘性微溫, 一云溫’)⁷⁾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본초강목』에서는 인삼을 기침하고 토혈하는 데(咳嗽吐血)에 응용한다고 하였으나⁸⁾, 『동의보감』에서는 “인삼은 폐화(肺火)를 동하게 하므로, 토혈하고 기침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人蔘 動肺火, 凡吐血 久嗽…之人 勿用’).”⁹⁾라고 하여 서로 상치 되는 모습을 보인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Dong Seon
Herbal Medicine Improvement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483 Expor-ro,
Yuseong-gu, Daejeon, 305-811, Korea
Tel: +82-42-868-9639
Fax: +82-42-868-9573
E-mail: dskim@kiom.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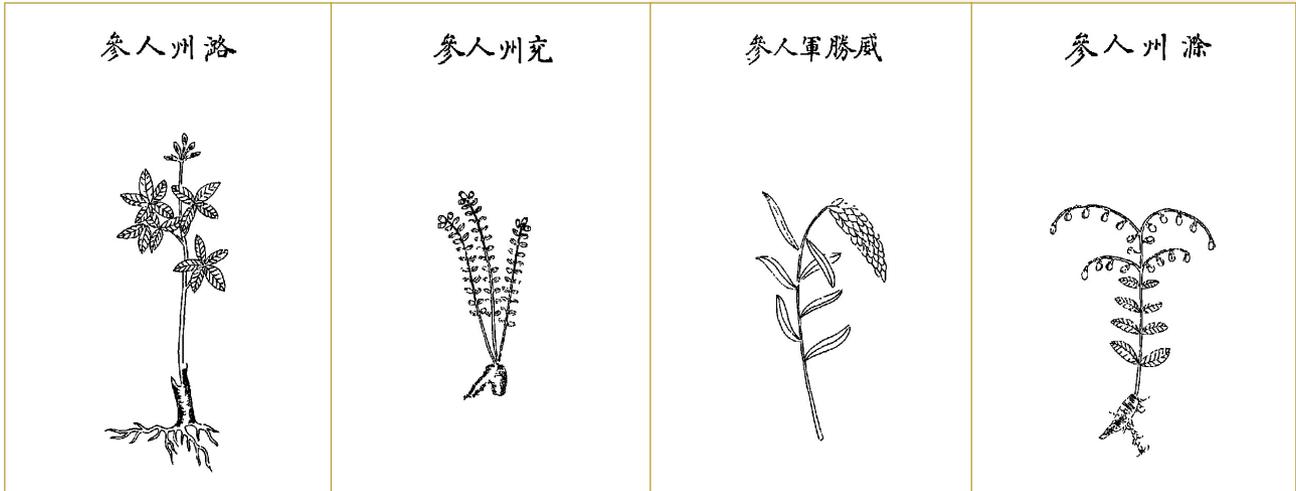


그림 1. 『중류본초』에 수재된 산지별 인삼 그림(좌로부터 노주, 연주, 위승군, 저주 인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야생인삼(산삼)과 재배인삼의 효능 차이를 들 수 있다.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인삼의 재배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며, 따라서 고려시대 이전(중국 원나라 이전)의 문헌에 등장하는 인삼은 모두 야생인삼을 가리킨다. 야생인삼은 재배인삼과는 형태에 큰 차이가 있으며, 현대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진세노사이드 등 성분의 함량과 비율이 다르므로¹⁰⁾, 효능 또한 같지 않음을 가정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고문헌에서 가리키는 인삼의 기원식물이 전

혀 다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송나라 이전의 본초학을 집대성한 『중류본초』에는 산지별 인삼의 형태를 묘사한 그림 4점이 등장하는데, 노주(潞州)¹¹⁾ 인삼은 현대의 인삼과 흡사한 모양인데 반해 연주(兗州)¹²⁾, 위승군(威勝軍)¹³⁾ 및 저주(滁洲)¹⁴⁾ 인삼은 백합과, 벼과 또는 초롱꽃과에 가까운 모양으로 전혀 다른 식물을 묘사하고 있다(그림 1)¹⁵⁾. 따라서 재배인삼이 널리 유통되기 전인 고대-중세의 문헌에 등장하는 인삼은 현대의 인삼과 다른 식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문헌의 기록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만 한

- 1)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약전 제9개정. 2007.
- 2) 주영승. 운곡 본초학(총론). 서울: 도서출판 서림재, 2002:377.
- 3) 李時珍. 本草綱目. 1596.
- 4) 龔廷賢. 萬病回春. 1587.
- 5) 황도연. 方藥合編. 1884.
- 6) 孫星衍 편. 神農本草經. 1799.
- 7)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1249.
- 8) 허준. 東醫寶鑑. 1613.
- 9) 李時珍, 전계서.
- 10) 허준, 전계서.
- 11) 정희선. 인삼·산양삼·자연산 산삼의 ginsenoside 함량 분석 및 홍삼화 후 성분변화 비교.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12) 지금의 중국 산시성(山西省) 창즈(長治)이다.
- 13) 지금의 중국 산둥성(山東省) 지닝(濟寧)이다.
- 14) 지금의 중국 산시성(陝西省) 셴양(咸陽)이다.
- 15) 지금의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추저우(滁洲)이다.

이 그림들에 대해 이시진은 『본초강목』에서, 노주 인삼만 진품이며 연주 인삼은 제니(薺萋. 모시대)이고 저주 인삼은 사삼(沙蔘. 잔대)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위승군 인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 일례로, 『신농본초경』의 주석에 인용된 5세기 문헌인 『이원(異苑)』에는 “인삼 중에서 사람의 모양을 완전히 갖춘 것은 아이 울음소리를 낼 수 있다(‘人形皆具, 能作兒啼’).”¹⁶⁾라는 미신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기록은 당시의 지식수준과 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취사선택해야 한다.

현재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의 명칭에 대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및 중화민국(대만)의 각 공정서에서는 ‘인삼(人蔘)’으로 통일하고 있으나¹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약전에서는 공정명칭을 ‘고려인삼’으로 하고 그 기원중에 대해서도 “개성 지방에서 재배한 인삼의 뿌리를 가공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¹⁸⁾. 『증류본초』와 『본초강목』에서도 ‘고려삼(高麗蔘)’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있는데, 랴오둥(遼東) 지역에서 산출된 인삼을 고려삼이라고 하였다(‘高麗, 卽是遼東’)¹⁹⁾. 이때의 ‘고려’는 통일신라와 조선시대 사이에 있던 고려가 아니라, 백제·신라와 함께 삼국을 이루던 고구려를 지칭한다. 고구려는 장수왕(394~491) 이후 국호를 고려로 바꾸었으며, 왕건이 세운 고려는 랴오둥 지역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위 문헌에는 백제 인삼과 신라 인삼이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위 문헌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도홍경(陶弘景, 456~536)의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인데 도홍경은 중국 양(梁)나라 사람으로 당시 한반도는 삼국시대였기 때문에, 고문헌에 등장하는 고려삼은 사실 고구려 인삼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상당(上黨)²⁰⁾, 감단(邯鄲)²¹⁾, 사주(沙州)²²⁾, 강희(江淮)²³⁾ 등 중국내에서 산출되는 인삼의 특징들도 언급되고 있

다. 고대 중국에서는 특히 상당삼(上黨蔘, 상당 지역에서 나는 인삼)을 최상품으로 인정하여 진인삼(真人蔘)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며, 『본초강목』에는 상당삼과 가짜 인삼을 구별하는 이색적인 방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두 명의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은 인삼을 입에 머금게 하고 다른 사람은 빈 입인 채로 3~5리 정도를 달리게 한다. 인삼을 머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매우 숨이 차게 되나, 인삼을 머금은 사람은 호흡이 태연하다. 그러한 인삼이라야 진품이다(‘欲試上黨蔘, 但使二人同走, 一含人蔘, 一空口, 度走三五里許. 其不含人蔘走必大喘, 含者氣息自如. 其人蔘乃眞也’).”²⁴⁾

한편, 『홍삼지(紅蔘志)』²⁵⁾에 의하면 조선시대까지 야생인삼의 주산지인 관동(關東, 현재 강원도 동부)과 강계(江界, 현재 북한 자강도)였으며, 재배인삼은 17세기 말엽 동북(同福,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의 서씨가 처음 재배에 성공하였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개성에 홍삼 제조시설이 설치되면서 재배인삼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문헌에서는 인삼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었는데, 산에서 자생하는 산삼(山蔘), 산삼의 씨를 산에 뿌려 여러 해 뒤에 수확하는 산양(山養), 산삼의 씨를 밭에 심어 재배하게 된 가삼(家蔘), 가삼의 약성을 완하시키기 위해 찐 홍삼(紅蔘), 중국과의 사신 무역에 사용된 인삼인 포삼(包蔘) 등이다.

흔히 홍삼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진 것은 『선화봉사 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²⁶⁾의 “날것과 익힌 것의 두 가지가 있다(‘有生孰二等’).”라는 언급이지만, 이 문헌에 ‘홍삼’ 또는 ‘숙삼(熟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는 않으며, 인삼을 찌

16) 孫星衍 撰, 錢坫 校.

17)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게서.

日本 厚生労働省. 第十五改正 日本薬局方. 2006.

中华人民共和国 国家药典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药典 2010年版. 2010.

中華民國 行政院衛生署. 中華中藥典. 2004.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부 약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 제5판. 1996.

19) 唐慎微, 전게서.

李時珍, 전게서.

20) 지금의 중국 산시성(山西省) 창즈(長治)로, 노주(潞州)의 다른 이름이다.

21) 지금의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한단(邯鄲)이다.

22) 지금의 중국 간쑤성(甘肅省) 주취안(酒泉)이다.

23) 지금의 중국 장쑤성(江蘇省)과 안휘성(安徽省) 일대로, 저주(滁州)를 포함한다.

24) 李時珍, 전게서.

25) 김택영. 韶濩堂文集定本. 1922.

2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1167.

서 익히면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經湯釜而孰者, 可久留’) 이외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본초강목』에 이르러서야 ‘숙삼’이 등장하는데, 생삼(生蓼)은 성질이 서늘하여 열성 질환에 적합하고, 숙삼은 성질이 따뜻해 비폐(脾肺)가 허약할 때에 적합하다는 내용이다(‘人蓼生用氣涼, 熟用氣溫. …如土虛火旺之病, 則宜生蓼, …脾虛肺怯之病, 則宜熟蓼’)²⁷⁾.

‘홍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헌은 『정조실록(正祖實錄)』인데, 정조 21년(서기 1797년)에 상인들이 사신 무역에 홍삼을 쓸 수 있도록 요청하자 정조임금이 “인삼은 색이 누르고 흰데, 지금 붉다고 하는 것은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蓼色黃白, 則今謂之紅者, 非假造而何’)?”라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그러나 『순조실록(純祖實錄)』에서는 순조 21년(서기 1821년)에 의주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인삼 대신 홍삼이 쓰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每歲入燕紅蓼, 專出於此地’)²⁹⁾, 이를 통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홍삼이 대대적으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한말의 문헌인 「홍삼지」에는 “최씨가 청나라 남해(南海)³⁰⁾ 사람들에게 인삼을 몰래 팔았는데, 남해 사람들은 풍토병에 인삼을 복용하고 효험을 보았으나, 종종 효과가 없는 때가 있었다. 최씨가 생각하기에 이는 인삼의 약력(藥力)이 너무 강해서 그런 까닭이라 하여, 나중에는 인삼을 찌서 그 약력을 줄여 팔자 청나라 사람들이 다투어 사갔다. …… 이것이 홍삼

의 시작이다(‘崔潛售于清南海人, 南海人之病於瘴者購服得效, 然往往有不宜者. 崔自念曰 此蓼力太盛故也, 後則蒸殺其力以售, 於是清人爭購. …此又紅蓼之始也’).³¹⁾”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홍삼을 만들게 된 계기를 알 수 있다. 이 문헌에 언급되는 ‘최씨’의 사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홍삼지」에 의하면 최씨는 인삼을 최초로 재배한 서씨에게서 인삼 재배법을 전수받았다 하였고, 역사상 청나라가 광둥 지역을 지배한 것은 1652년 이후이므로 홍삼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빨라도 17세기 후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삼은 두통, 발열 등의 열성(熱性)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맞지 않으며, 홍삼은 이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초강목』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생삼과 숙삼의 약성이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삼이 열을 떨어뜨리고 숙삼은 따뜻하다고 하여 일반 상식과 정반대이다. 또한 『신농본초경독(神農本草經讀)』에는 생삼과 숙삼의 약성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성질이 서늘하다고 기록되어 있다(‘時珍說生則寒, 熟則溫, 附會之甚. 蓋藥有一定之性, …人蓼惟微寒?肺’)³²⁾. 그러나 현재 한의학계의 정설은 인삼과 홍삼의 성질이 모두 따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³³⁾, 홍삼이라고 해도 약성이 크게 변하거나 인삼 고유의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미자·맥문동 등을 함께 배합하는 방법³⁴⁾이 권장되고 있다.

27) 李時珍, 전계서.

28)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 인터넷 원문 서비스. 2005. <http://sillok.history.go.kr>

29) 상계서.

30) 지금의 중국 광둥성(廣東省)이다.

31) 김택영, 전계서.

32) 陳念祖. 神農本草經讀. 1803.

33) 주영승. 운곡 본초학 각론(하). 서울: 도서출판 서림재. 2004:324.

34) 李時珍, 전계서.

